



“개방·융합·혁신 연구중심병원 지향”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개소, 산·학·연·병 공동 R&D 플랫폼 구축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서울대병원이 개방과 융합, 혁신을 바탕으로 한 산·학·연·병 간 공동 R&D 플랫폼을 구축했다. 서울대병원(병원장 오병희)은 지난 8월 16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병원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신개념 의학연구의 플랫폼이 될 ‘의학연구혁신센터’를 개소했다.

개소식에는 성낙인 서울대 총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방영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의학연구혁신센터(CMI, Center for Medical

Innovation)는 산업계, 대학, 연구소와 병원이 R&D 전 과정을 초기단계부터 공동으로 진행하는 의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 2012년 5월 착공한 의학연구혁신센터는 지상 4층, 지하 5층에 연면적 3만 1261㎡ 규모로 62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서울대병원 오병희 원장은 “공간 부족이나 시설투자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코이카에서 무상사용 허락을 얻었다”면서 “이 센터는 논문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연구를 위한 연구, 결과물을 갖고 가치를 창조하고 환자나 진료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연구혁신센터에는 산학연 융·복합 연구수행을 위해 신설된 중개의학연구소가 자리잡고 있다.

산하에는 중개의학연구의 핵심인 바이오마커(단백질이나 DNA, RNA(리

복핵산), 대사물질 등을 이용해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센터가 있고 고가 장비인 3D 프린터를 도입, 의료기기의 아이디어 구현 및 디자인·시제품 구현을 위한 디자인 스튜디오·기계공작실이 있다.

또한 인체자원은행, 암조직은행과 신설 예정인 뇌은행으로 구성된 SNUH 바이오뱅크도 중개의학연구소장 산하 독립기구로 있다.

이와 함께 병원 내 의료정보와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저장해 연구자원화하기 위한 독



▲(왼쪽부터)홍창희 전 서울대병원장,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영자 허완구 승산그룹 회장 부인,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권이혁 전 서울대병원장,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나경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적으로 임상의학정보실이 지난해 신설됐다. 의학연구혁신센터에는 총 200여명의 교수가 벤치를 분양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500여명의 상주 연구원과 연구지원인력이 있다. 또 2개 업체가 입주 예정으로 있다.

의학연구혁신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산(産)·학(學)·연(研)·병(病) 간의 혁신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이다. 이전까지는 각 기관들의 탐색, 연구, 위탁, 임상, 제품화 등이 단계적이고 개별적이었다.

그러나 환자치료를 위한 신제품 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제약산업계(産)-학교(學)-연구소(研)-병원(病) 등이 개방과 융합을 통해 효율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하면 연구소에서 신약후보 물질을 찾아내 제약 스폰서를 거쳐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기존의 임상연구였다면, 앞으로는 질병을 기반으로 임상의료 기술이 적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참여해

통합적 연구개발을 하는 중개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방영주 의생명연구원장은 “의학연구혁신센터는 개방과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서 한국형 연구중심병원과 HT(Health Technology)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세계 우수 병원 사례와 같이 연구를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모델을 실현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단기적으로는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재원을 더 투자해야 할 것”이라며 “그때도 결과물이 나온다면 서울대병원뿐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희 기자/MP저널